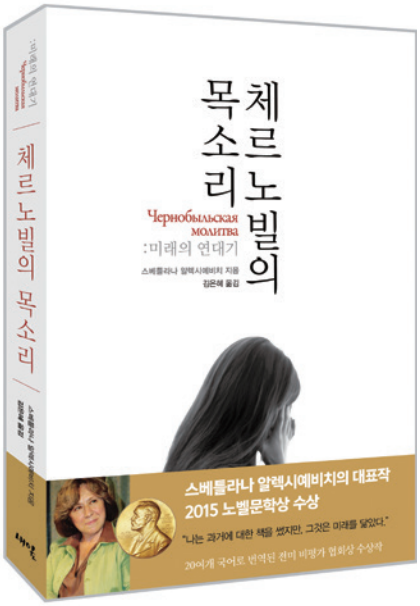
책으로 세상을 읽다

「체르노빌의 목소리 : 미래의 연대기」 ‘나는 체르노빌레츠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체르노빌 사람들 이야기

글. 이하민 북칼럼니스트 / 前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상상프로젝트 기자



「체르노빌의 목소리 : 미래의 연대기」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지음

20세기 최대의 기술적 재난은 ‘체르노빌’이었다. 1986년 4월 26일 당시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원전 사고를 말한다. 다량의 방사능이 유출되어 주변 지역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고, 사람을 포함한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사고의 후유증은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체르노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체르노빌 하면 보통 러시아를 떠올리지만, 사실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는 벨라루스였다. (물론 1986년 벨라루스는 소련에 속해 있었다) 벨라루스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와 가장 인접한 지역이었다. 인근 마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농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현장

도 방사능을 그대로 맞았다. 그러나 이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단지 매체를 통해 공개된 방사선 수치와 일부 끔찍한 사진들만이 기억에 남아있을 뿐이다.

<체르노빌의 목소리 : 미래의 연대기>는 국가적 재난을 당한 벨라루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10여 년간 약 100명의 사람을 인터뷰했다. 사고의 피해자, 가해자 등 체르노빌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가리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당국의 검열로 몇몇 인터뷰가 삭제되는 등 갖은 고초를 겪었으나 지난 2011년 완전체로 세상에 나왔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이 책은 과거를 말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미래의 연대기'이기도 하다.

줄거리 - 체르노빌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책은 원전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순국한 어느 소방대원 아내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 책에서 전하는 체르노빌 사람들의 삶을 응축하고 있다. 전례 없는 원전 사고, 무방비로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 서서히 죽어가는 피해자들, 그들을 떠나보낼 수 없는 가족, 그리고 사랑과 헌신.

이후 1, 2, 3장에 걸쳐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가 전해진다. 1장은 '망자의 땅'이다. 방사능 오염으로 버려진 땅과 남겨진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능은 급속도로 주변 지역에 전파되었다. 특히 가장 인접한 지역이었던 벨라루스 여러 마을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당국은 주민들을 마을에서 대피시켰다. 언제 돌아올 것이란 보장은 없었다. 사실상 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 땅을 버리지 못했다. 정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민들은 끝까지 남아 버틴다. 그들에게 땅은 삶의 일부였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남은 동물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람과 동물은 어느새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다.

출처 : Pixabay

2장 '조물주'는 체르노빌의 피해자들이 겪은 일들과 감정, 가치관, 생각의 변화에 집중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의료진, 정치인들은 방사능과의 인과성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였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이해가 엮여 있었다. 한편, 체르노빌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외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어디를 가도 자신들은 '체르노빌레츠'로서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나았다. 동물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인의 총에 무참히 살육되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사람은 말하는 흙, 동물은 걷는 먼지'라고 표현했다.

체르노빌 이후에는 사람이 이전에 사랑하고, 친숙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낯선 존재,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사랑할 수

체르노빌 사고 발생 20주년 기념비 / 출처 : Pixabay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변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이기심'이었다.

3장 '슬픔의 탄식'은 체르노빌 사태가 일어난 복합적인 원인, 그것이 주는 함의, 죽음과 미래에 대한 성찰 등에 주목한다. 원전 사고가 터진 이후 정부와 언론은 사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은폐하는 데 주력했다. 대신에 이들은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의 영웅성만을 부각했다. 과학자들 역시 정부의 서슬 퍼런 권력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리지 않았다. 일부 과학자는 기술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사태를 방관했다. 한편으로는 주민들 역시 진실을 알기를 거부했다. 체르노빌 사태는 소련이라는 권위주의적 정부,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준비되지 않은 민중의 인식을 배경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책의 마지막은 어떤 희생자 아내의 독백으로 마무리된다. 어떻게든 살아내면서 이 고통과 죽음의 의미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신이 창조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 체르노빌

저자인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첫째는 피해 지역에 대한 인식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 둘째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었다는 점이었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벨라루스 주민을 포함한 무려 약 100명의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전하는 것이 저자의 목표였다.

그래서인지 이 책은 서문을 제외하고 저자의 의견이나 논평, 해석 등이 거의 없다. 또한 인터뷰한 사람들의 말투를 그대로 보존하여 에피소드마다 글의 어조도 모두 다르다. 필자도 이런 형식의 책은 익숙지 않았기에 약간은 당황스러웠다. 처음에는 '이 대목에 대한 저자의 의견은 무엇인지', '피해자 주장에 대한 부연 설명과 그 사이에 숨겨진 맥락이 있는지' 등에 대한 갈증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책을 읽어나갈수록 당시 현장에 있던 것처럼 만드는 극도의 사실성과 생동감에 빠져들었다. 저자의 이런 의도는 책의 한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제발, 진실을 알고 싶습니까? 제 옆에 앉아 들리는 대로 받아 적으십시오".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언어로 써야 한다는 판단이었을 게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던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히틀러

많은 피해자들은 원전 사고를 제2차 세계대전과 비교했다. 일종의 '전쟁'과도 같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전 사고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전쟁을 방불케 했다. 대규모 지역 대피령, 막대한 인명 피해, 군인 소집 등 당시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체르노빌은 일반 전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다. 방사능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 처참히 무너졌다. 그들에게 체르노빌은 2차 대전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였다. 또한 전쟁은 대개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만, 원전 사고는 그렇지 않다. 방사능은 사라지기까지 수천, 수만 년이 걸린다. 이것들이 존재하는 한 전쟁은 앞으로도 끝나지 않는다. 저자가 체르노빌을 과거가 아닌 여전히 감당해야 할 미래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하튼 체르노빌은 그 이전까지 전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대사건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직접적인 피해 주민뿐만 아니라 군인, 경찰, 의료진, 과학자,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특히 지역 주민과 군·경은 그 거대한 상황 속에서 가장 갈등하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주민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책을 읽으면 군·경이 가해자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이들도 소련 권위주의 정권의 또 다른 피해자였다. 당시에는 주민도, 군·경도 서로의 입장을 터놓지 못해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각자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 속 깊은 마음이 우러나온다. 어느 군인은 "농부들은 왜 곡식을 거두면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라며 당시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마치 그간에 뿌리 깊었던 갈등과 오해가 이 책을 매개로 풀리는 것 같았다. 아마 저자도 이것을 의도했으리라.

체르노빌이 인류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소외'와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들과 그 가족은 '오염물' 취급을 받으며 사회에서 고립되었다. 오죽하면 '체르노빌레츠'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더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 스스로마저 자신을 '체르노빌레츠'로 여겼다는 것이다. 또한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식을 낳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전에 사람과 친밀했던 동식물은 인류를 위협하는 제거 대상이 되었다. 너무나 당연했던 우리 삶의 존재 방식이 한순간에 뒤집어졌다. 저자는 서문에서 "체르노빌은 사람 외에도 수많은 생물들이 존재하는 신이 창조한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썼다.

체르노빌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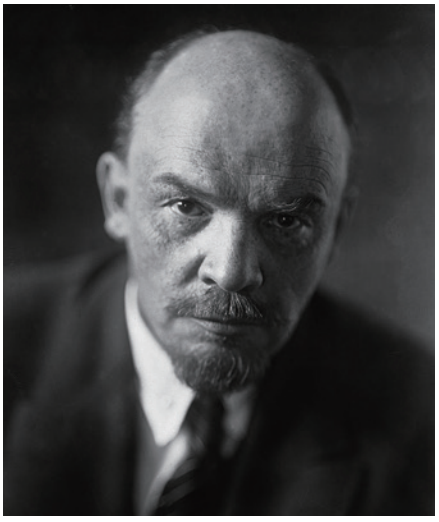
체르노빌 사건은 소련의 공산주의 정권이 기울어가던 무렵에 일어났다. 소련은 한마디로 말해 개인의 의식을 말살하던 정권이었다. 농민, 의사, 과학자, 공무원, 정치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레닌과 스탈린에 충성했다.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 이들에게 체르노빌은 전례 없던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소련을 향한 애국심, 레닌의 혁명적 사상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자들은 사회적인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 출처 : Pixabay

>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 벨라루스 주민을
> 포함한 무려 약 100명의
>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 이들의 목소리를
>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 온전히 전하고자 하였다.

으로 무장했으나 체르노빌 앞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책에서는 당시 가해자 편에 있던 과학자, 정치인 등이 이에 대해 참회하는 대목도 나온다. 다시 말해 체르노빌은 생각이 말살된 사람들의 맹목적 충성과 기술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초래한 비극이었으며, 이는 곧 소련이라는 구체제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고 난 뒤 몇 년 지나지 않아 소련은 붕괴된다.

레발스키라는 역사학자는 이에 관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당시 소련인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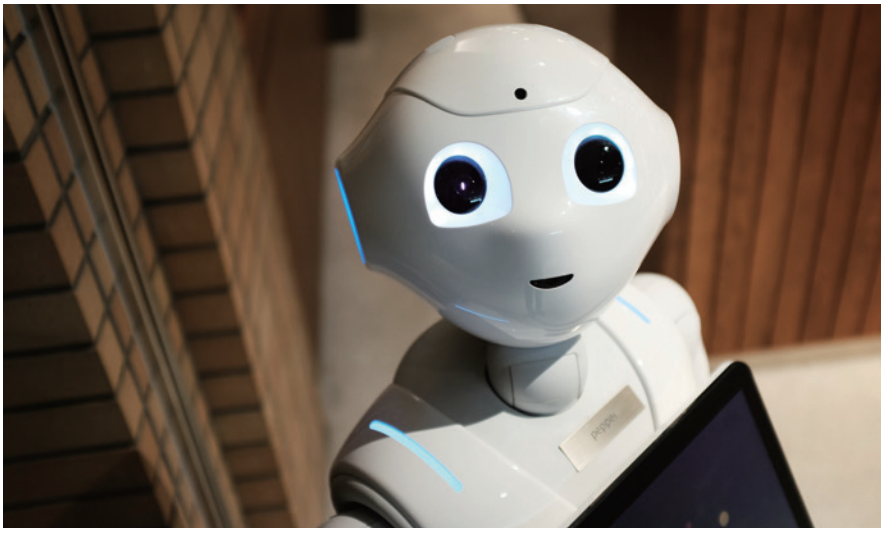
20세기 러시아인들의 의식을 지배했던 레닌과 스탈린 / 출처 : 위키피디아

압축적 성장을 이뤘던 우리나라 역시 인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 대표 사례였던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 출처 : 위키피디아

인식이 '석기시대'와 '핵 시대'라는 두 시기에 동시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즉 급진적인 산업화로 핵이라는 고도의 기술을 다루면서도, 여전히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는 후진적 습성이 그들에게 공존했다. 이러한 인식의 괴리는 소련이 체르노빌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국내 정치학자 임혁백 교수는 이를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정의했다.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이룬 국가는 필연적으로 전근대와 근대적 사고가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런 국가들에서 기술적 재난, '인재(人災)'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체르노빌만큼의 재앙은 아니었지만, 20세기 압축적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대형 사고가 있었다. 여기서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과거 20세기에만 한정된 단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미래에는 어떤 비동시성이 새로이 발생할지 모른다.

체르노빌이 막강하긴 했으나, 그래도 인간이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만은 아니다. 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뜨거운 사랑을 나눈 사람도 있었다. 또한 고통과 죽음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투쟁한 사람도 있었으며, 어려운 이웃을 구제한 마음 따뜻한 사람들도 많았다.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은 있다. 그 희망 덕분에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저자의 표현인 '미래의 연대(年代, 시간이 지나간 일정한 횟수)기'를 빌려 '미래의 연대(連帶, 서로 연결되어 있음)'가 가능할 것이라 표현하고 싶다.



21세기를 대표하는 신기술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 출처 : Pexels

책을 읽던 중에 우연히 책갈피 내용을 보았다.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라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20세기의 기술적 재앙은 원자력이었다면, 21세기 재앙은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기술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분명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체르노빌의 목소리 : 미래의 연대기>는 기술적 재난, 즉 인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만든다. 그것은 결국 기술에도 인간의 성찰이 내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